

지역 매아리

서해성 초청 김제지평선아카데미

제572회 김제 지평선아카데미는 소설가, 칼럼니스트, 외래교수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해성 작가를 초청하여 오는 9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화폐인물로 읽는 한국근현대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강연시간을 마련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국 화폐에는 근대 이전의 인물만 존재하고 근대인물은 없는 것일까"로 화두를 던지며,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과 봉건시대와 싸움을 통해 화폐에 등장한 이승만 등에 관해 이야기하여 서해성 작가의 특유의 재치와 통렬한 비판으로 화폐권력과 시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외계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지난 6일 기록적인 폭염 속, 안전한 교월동을 위해 복지동대원을 비롯한 복지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 가스시설 예방점검과 가스안전차단기 설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즉각 대응이 어려운 화재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8세대를 우선 선정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동대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가스안전차단기(설치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함은 물론 안전한 가스 사용방법,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성산로타리 식염포도당 기탁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성산로타리 클럽(회장 김상봉)은 지난 6일 김제시(시장 박준배)를 방문하여 식염포도당(1백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성산로타리클럽(회장 김상봉)은 국제로타리 핵심 가치인 봉사, 친교, 다양성, 정직, 리더십을 바탕으로 초야의 봉사를 실현하고, '봉사의 이상'을 사업의 기본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단체는 기업이나 전문직종사자들의 도덕의식을 고양하며 세계의 기업가와 전문직종사자 간에 친선을 도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물품은 클럽 회원들이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전달할 계획이다.

김제성산로타리클럽은 지난 7월 광화면 화일경로당을 시작으로 매일 1회이상 지역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회공헌으로 주민 삶의 질 'Up'

완주군, 사회공헌 사업 활발

#1. 완주군 웅진읍에 거주하는 중학생 A양의 여동생은 뇌병변장애 1급과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A양 가족의 모든 관심은 여동생에게 집중됐고, 가정형편도 넉넉지 못했다. A양은 자신감 저하와 함께 학습욕구도 현저히 떨어져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A양을 돕고자 완주군은 푸르메재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A양은 매월 20만원씩을 10개월 동안 지원받게 됐다. 이 지원비로 A양은 학원을 다니며 소중함 꿈을 키우고 있다.

#2. 고산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미래 학생은 지난해 여름 완주군의 국악오케스트라에 입단했다. 원래부터 방과후 수업으로 가아음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악오케스트라 창단 소식에 바로 가입원서를 넣었다. 국악오케스트라를 통해 다른 학교의 새로운 친구들과도 만나게 됐고, 악기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가아음을 알려

주며 급세 친해졌다. 김미래 학생은 국악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협업을 배우게 됐고, 다른 악기에도 관심이 생겨 배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악오케스트라 등 각 분야별로 진행 중 복지수요 충족 효과

완주군이 작지만 큰 가치를 담은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7일 '완주군 2018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완주군의 사회공헌사업은 총 39건에 10억원에 달한다.

A양이 지원받은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김미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국악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완주군의 사회공헌사업은 다문화가족 무료 건강검진, 장학금 지원, 위기가정지원사업, 공부방 만들



완주군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사회공헌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악오케스트라.

기, 장애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아동권리영화제 등 저소득층, 다문화, 아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사회공헌사업은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 현금 기부와 같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현금기부와 자원봉사,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완주군은 사회공헌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조직의 협업체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보일러 시설 지원, 창호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재단과 완주군의 복지가 만나면서 수요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돼야 한다"며 "작지만 시대적,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문원영 완주부군수 혁신도시 방문

문원영 완주군 부군수(사진)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방문해 완주군을 소개했다.

완주군은 최근 문 부군수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찾아 완주의 관광자원을 직접 설명해 교육생들의 현장 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문 부군수의 방문에 교육원의 교육계획을 담당하는 직원 10여명이 모두 참여하면서 완주 관광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명회 통해 문 부군수는 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솔테마 박물관, 산테문화예술촌, 대아수목원 등 관광코스를 제시하고 전북패스카드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여행자인 대한민국 솔테마박물관의 다양한 체험과 기획전시 등을 알렸다.

특히 솔박물관에서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백주와 함께하는 뉴티틀 썸머타임'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전에서는 우리나라에 맥주가 첫 선을 보인 1870년대부터 현재 지역의 특유의 맥주문화인 기백까지 두루 보여주고 있다.

문 부군수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은 작은 것부터 찾아 실행하는 것이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완주군의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여름 휴가지로 인기 폭발

올 한해 7만여명 다녀가

10~12일 무궁화축제도 열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 피서객들이 대거 몰리는 등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고산자연휴양림에는 7월말 기준으로 올해만 7만 375명이 다녀갔다.

고산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과 문화·산림·웰빙휴양관 등 52객실의 숙박시설과 나무 위에서 장애물을 넘는 에코어드벤처가 운영되고 있어 특히나 각광받고 있다.

완주군은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무궁화테마식물원 일원)에서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도 열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피서객들이 휴양림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김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총력

김제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작년부턴 시행중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배

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건축물 등기축탁 '큰 호응'

김제시, 작년 7월부터 시행 서비스 집계 결과 250여건 축탁

김제시는 건축물의 증축·개축 행위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축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축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50여건의 등기 축탁시행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물 대장의 표시변경

및 말소로 인한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사항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른 법무사대행수수료와 법인등기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나 서비스 대행으로 수수료비용 부담을 해소 시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공부관리로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등기축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

한편 건축물 등기축탁 서비스 신청은 변경 건축물대장과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